

# 산업현황 브리핑



2011년,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섬유화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연쇄 사망하는 의문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들의 공통된 사인은 원인미상의 급성 폐질환, 사망자 모두 임신부라 국민들의 충격 또한 컸다. 의문의 죽음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대대적인 역학조사를 진행, ‘가습기 살균제’를 연쇄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530명, 사망자는 약 140명으로 나타났으며, 추정 사망자 및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진 옥시는 사과논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가습기살균제 판매 허가를 내준 정부 역시 사태에 책임을 통감,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의 면담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구제에 나설 것을 약속했으며, 국회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에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1200억여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하였다.

이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사람의 기도를 통해 폐로 흡입하는 유해물질이 얼마나 인간에게 위험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의 11월 뉴스레터를 통해 이러한 가습기산업과 관련하여 현 기술 수준에 대한 것을 거론하고자 한다.

## ① 미생물과 관련한 가습기 산업현황

청정공기 즉 유해원이 없는 깨끗한 공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사용 시 유해원인인 미생물의 제어에 대한 필요성 증대되고 있다.

국내 가습기 보급 현황 및 초음파식 가습기의 시장점유율과 한계점, 가습기의 미생물 오염방지 기술개발 현황 등 미생물에 대한 공기중 오염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시장이 커져 가고 있는 국내 가습기 산업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 ②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인체유해성 이슈를 돌아보며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신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 2011년 5월 10일 입원환자 중 34세 여성 사망, 2011년 6월 여성 3명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하고 2011년 9월 30일 한국소비자원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제 권고하였고, 그해 11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 측은 동물실험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섬유화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물질의 독성시험은 설계부터 진행, 결과해석에 이르기까지, 과학적인 여러 요인을 고려한 책임있는 연구자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현재 화평법 관련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된 유해성평가 입증자료들이 생산되는 GLP기관 종사자들의 책임과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 ③ 이제는 가습기 하나 사도 될까

「실내용 가습기 단체표준인증(HH)」 시행 후 가습기 제조업체에서는 더 이상 살균제 피해는 없을 것임을 강조하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위 명품 가전이라 불리는 고가 가전이 인기를 끌면서 가습기 또한 공기청정 기능까지 겸비한 고가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무선청소기를 시작으로 명품 가전의 대명사가 된 ‘다이슨’의 가습기는 80만원을 상회하며, 심플한 디자인으로 두터운 매니아층을 지닌 ‘발뮤다’의 가습기는 60만원이 넘는다. 소형가전에 걸맞지 않는 턱없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고가 가습기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메디컬소재기획팀〉